주간농업 농촌동향	외신동향

2011.08.08 미래정책연구실

❑ 러시아, 저가 공세로 곡물수출국 지위 회복 노력

1. Bloomberg(2011.08.01) 주요 내용

❍ 러시아는 금년 6월까지로 설정했던 곡물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7월 1일부터 수출을 재개하였음.

❍ 수출금지조치 이전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밀 수출국이였으나, 이후에는 8위까지 추락함.

- **곡물수출금지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로의 밀 운임률은 44% 감소했고, 전체 수출량은 79% 감소한 390만톤**으로 나타남.

❍ 이에 러시아는 주요 곡**물 수출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앞으로 4년간 밀 가격을 크게 낮추어 수출**할 것이라고 발표함. 주요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, 북아프리카임.

- 수출 재개 후 7월 곡물 수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농업시장연구소(IKAR: Institute for Agricultural Market Studies)는 밝힘.

❍ 러시아산 밀 가격은 톤당 40달러 내외로 경쟁국인 북미, 프랑스, 호주의 공급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.

- 이로 인해 향후 1년간(금년 6월 30일 이후) 장거리 운송 지역인 동남아시아 및 남부 아프리카로 밀 100만 톤(2009/10년 동기대비 54% 증가) 정도가 수출될 것이라고 IKAR는 예상함.

※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(Novorossiysk)항구에서 베트남의 호치민시(Ho Chi Minh City)까지의 거리는 6,900해리(12,778km: 소요 시간 약 2달)임.

❍ 국제곡물이사회(IGC: International Grains Council)에 따르면, **7월 관측 결과, 러시아 밀 생산량(내년 6월까지)은 지난달 예측치보다 4% 증가한 5,600만 톤으로 전망**됨.

- 내년 6월까지 곡물 수출량은 1,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IGC는 밝힘.

❍ 한편, **곡물 최대 수입국인 이집트**는 곡물수출금지 조치 해제 이후, 러시아의 적극적인 저가 공세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밀 72만 톤을 수입함.

- 러시아의 수출금지조치 해제 이전,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밀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함. 이후 이집트도 러시아를 주요 곡물 수입국 명단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.
-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7월 26일 러시아산 밀 도입단가를 톤당 249.47~250.40달러로 합의함. 이는 선물거래시장 가격의 88% 수준임.

※ 뉴욕증권거래소(NYSE) 및 런던국제금융선물옵션거래소(Liffe)에서의 11월 인도분 밀 선물거래 가격은 톤당 283.27로 거래됨.

❍ 이러한 러시아의 저가 공세로 인해 밀 수출 경쟁국가의 수출가격도 동반 하락함.

- 7월말 기준, 밀 거래가격은 5월보다 런던국제금융선물옵션거래소에서 16%, 시카고선물거래시장에서 4% 하락함.

❍ 하지만 곡물 수출물량의 소진, 장거리 수송 기간(약 2달) 등을 감안하면, 러시아는 장기간 저가 공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IKAR는 밝힘.

※ 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